

##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매니쉬와 페미닌

심정은

씨엔티유니온 소재 트렌드 기획팀장

패션트렌드에서의 영원한 양대 산맥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다. 이 둘은 상반된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유행의 변화곡선을 그린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표현은 본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표현될 때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한 양상을 보인다.

패션에서 남성과 여성, 힘의 표현은 주로 실루엣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여성복에서는 남성의 권력과 힘의 소유를 각진 남성적 실루엣으로 표현한다면, 남성복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부드러운 색채와 소재, 장식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매니쉬와 페미닌이 2000년 이후 메가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트렌드 이슈와 함께 살펴본다.

### 1. 웰빙과 페미닌

20세기말, 세기말적인 우울한 분위기와 함께 인류 멸망, 자연 파괴로 암담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영화들이 트렌드가 되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2010 비전을 발표하면서 하이 테크놀로지로 꿈을 이루는 희망찬 21세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대와 걱정 속에서 2000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두들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바라본 21세기는 화려하지도, 어둡지도 않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 시작의 키워드는 ‘웰빙’이었다.

‘웰빙’. 이는 복지를 뜻한다. 여러 사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정부 시책의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self-well-happiness의 개념이다.

행복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제시되고 건강, 여유, 가족, 돈 등의 요소들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상품들이 제시되면서 각종 개인의 행동 규칙들 또한 다양하게 상품화되었다. 특히 건강

과 가족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혼자 여유를 즐기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盛行하고,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심도에 따라 마켓은 세분화 된다. 살사댄스에서 요가까지, 연령대를 초월하여 건강과 여유, 젊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화된다. 이러한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 추구는 좀 더 나아가 표현의 대담함을 가능하게 한다. 체형을 의식하기 보다는 대중 속에서 당당한 자신을 즐기며, 장식성과 노출을 서슴지 않는다.

2003~2004년도, 웰빙의 대주제는 로맨틱이라는 여성성 트렌드와 마주치면서 장식의 즐거움, 대담한 노출의 표현, 내추럴한 여성성을 제시하였다. 하늘거리는 듯한 가벼운 소재와 프릴, 레이스, 자수는 거의 모든 캐주얼, 세미 정장 스타일에 적용되어 마켓을 이끌어가며 특히 핑크 시리즈의 스타일들은 장식의 절정을 나타내는 듯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장식적인 데님 팬츠에서 울이 풀린 듯한 김영 셔츠, 변형된 레이스와 구겨진 세미 정장 라인인 과감한 신 여성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웰빙에서 비롯된 건강추구 경향과 때마침 열린 2002 월드컵은 스포티즘의 패션을 열기에 충분한 이슈가 되었다. 각종 트레이닝웨어 변형 스타일과 선수들의 유니폼 스타일과 소재는 중요 스포츠 캐주얼 아이콘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의 관심에 따라 마켓은 세분화되었다. 스틸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와 같은 감성적인 스포츠웨어가 제시되는가 하면 스포츠 브랜드에서 레이스나 큐빅같은 장식성을 도입하여 페미닌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는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스타일과 스트레치 소재, 배꼽을 드러내는 탑 패션 등 체형을 드러내거나 근육이 발달한 건강한 여성미 패션을 자극하였다.

## 2. 엄격한 매니쉬, 숨은 내추럴

2005년도 F/W, 페미닌에서 진보된 내추럴 트렌드는 트래디셔널이라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컬러감 있는 영국풍 체크를 메인으로 제시하면서 변화의 획을 긋기 시작한다. 영국풍 체크와 같은 컬러감의 멜란지, 트윌소재의 코트류들이 원사나 조직에서 내추럴의 미를 풍기고 있었지만, 기존의 플라워나 낡은 듯한 느낌의 변형된 형태에 비해 정형화된 선(체크나 직선적인 스타일)의 이미지로 인해 남성적인 느낌의 시작을 예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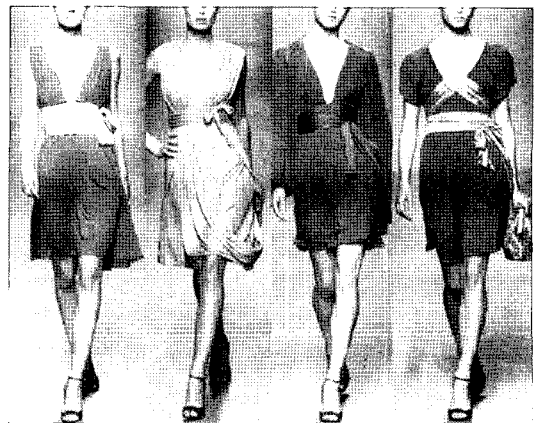
매니쉬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거부감 없이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06·'07 F/W 흑백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남성적인 스타일이 제시되었다. 색의 대비로 인해 더 강하게 제시되는 이 시기의 매니쉬는 아우터에서는 텍시도 라인에서 전형적인



테일러드 컬러의 스타일로, 이너에서는 홀러내리는 블라우스보다는 셔츠로 클래식을 표현하였다.

직선적인 스타일 라인이 중요시되었기에 소재는 얇고 광택감 있고 치밀하든, 혹은 두께감이 있든 실루엣의 형태감을 살릴 수 있는지가 주요 이슈였다. 실루엣에 집중하게 되면 세부 디테일이나 소재의 장식성에 대한 관심은 절제되기 마련이다. 특히 매니쉬의 모노그램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단색이나 혹은 멜란지로 단색 효과를 나타내는 소재가 주류였다.

브랜드에 따라 페미닌 요소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남성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변형하여



귀엽거나 예쁜 로맨틱 페미닌보다는 심플한 엘레강스 페미닌을 지향하면서 원피스 드레스 류에서 라운드 넥라인보다는 V 넥라인이 눈에 띄게 제시되었다.

매니쉬의 컬러와 각진 실루엣은 잠시 그 이전의 트렌드인 페미닌과 내추럴을 잊게 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매니쉬를 표현하는 소재는 컬러감만 다르게 제시되었을 뿐, 체크에서 스트라이프로, 멜란지나 트월에서 좀 더 정형화된 조직감있는 소재로 변화되어 계속 맥을 이어갔다.

트렌드가 반전될 때는 강한 이미지가 선포된다. 그 이미지가 특히 컬러로 제시되든, 소재 외관이나 스타일의 디테일로 제시되든, 실루엣으로 제시되든, 강하게 이전 트렌드에 反하여 논리를 꺾는 듯하다. 하지만, 트렌드는 흐름이다. 강한 반전은 그 이전, 반전을 위한 전초 조짐을 반드시 수반한다. 모노의 매니쉬 이전의 영국풍 트레디셔널이 그것이다. 영국풍 트레디셔널 이전, 페미닌에서 내추럴로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진행 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반함으로 트렌드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마켓 요구에 따라 시즌 주 컨셉을 이전 컨셉에 대한 반작용적/전환된 이미지로 변화시킬 뿐, 표현하는 요소들(소재, 컬러, 실루엣, 디테일)은 이전 트렌드의 작용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움직인다.

### 3. 은밀함의 페미닌

강하게 시작된 매니쉬의 영향으로, 스타일에서 여성적인 요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성적인 혹은 장식적인 컨셉의 브랜드에서도 기본 실루엣과 디테일을 남성적인 요소에서 이끌어와야 했다. 그러나 스타일이 커리어에서 시작하여 캐주얼의 전체 마켓에 범람하면 패션리더를 위한 일부 스타일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반작용/전환된 표현이 새로움을 요구하는 패션리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시되었다.

매니쉬에서 전환은 페미닌이며 대표적인 것은 장식성이다. 턱시도 라인에 마치 유럽의 근위병이나 궁중 예복을 연상하게 하는 스타일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는 얇고 비치는 소재 혹은 러플을 도입하면서 근세 남성들의 장식성으로부터 아이디

어를 빌려온 것으로 컨셉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 전제는 클래식, 매니쉬 안에서 장식성과 향후 페미닌으로 전환되기 위한 변형된 매니쉬가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08 S/S 시즌, 그 전환은 좀 더 뚜렷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은은한 핑크레드, 혹은 스킨 컬러들이 가볍고 반짝거리는 란제리류 소재나, 혹은 부피감 있는 소재, 혹은 메탈릭 광택소재와 함께 제시되면서 단순하지만 체형을 드러내는, 혹은 은은한 빛을 발하는 여성미가 강조되었다.



핑크는 페미닌과 어울리는 전형적인 컬러이다. 누구나 핑크라 하면 여성, 로맨틱, 귀여운, 리본, 광택 등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연상하게 된다.

이런 컬러와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즌이 되돌아 온 것이다. 단지 4년 전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모습보

다는 매니쉬의 영향을 품고 있기에 절제된 페미닌 스타일이 제시된다. 장식이 절제된다면, 소재나 실루엣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도출된다. 소재의 외관, 조직, 프린트 모티브 등은 더 섬세해지거나 대담해진다. 더 가볍거나, 몸에 붙거나 이중 효과를 연출한다. 따라서 현재의 페미닌은 좀 더 대담하게, 남성적인 모습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 커리어적인 페미닌, 여성미의 풍성하면서도 하늘거리는 우아한 페미닌, 대담하면서도 섹시한 미를 발하는 현대적 페미닌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매니쉬와 페미닌의 상반된 개념이 크로스 되면서 트렌드는 좀 더 페미닌 요소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내추럴, 오래된 것, 진귀한 가치에 대한 열망, 건강추구는 기본 가정하에 늘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매니쉬와 페미닌 트렌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은 좀 더 웅장하게, 혹은 좀 더 섬세하게 전개될 페미닌의 여러 모습들을 예상해 본다면, 현재 의류 및 코디 기획에서부터 상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구비해도 좋을 아이템과 한번 더 고려해봐야 할 아이템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박사  
(현)씨앤티유니온 소재 트렌드 기획팀장  
Tel. 02)549-1626  
E-mail. simjcongoun@hanmail.net

---